대구종친회 정기총회개최

△대구종친회가 「대구인터불교호텔 국화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대구종친회(회장권영하)는 11월21일 오후6시30분에 2014년도 정기총회를 인터불고호텔 국화홀에서 고문,회장단,종친회장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상주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시조묘소망배에 이어 공로패 및 운영위원위촉장수여, 장학금전달과 영하회장의 내빈소개와 인사말씀, 족친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고 지난 일년동안 별 대가없이 잘 지내와서 고맙고 앞으로 더욱 노력한다는 말씀에 이어 2016년 대구청장년회 체육대회에도 족친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시며 특히 바쁘신와중에도 권영진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언제나 우리는 한뿌리, 우리 족친여러분을 끝까지 잊지않겠다는 말씀에 우뢰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였으며 순호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충강사무국장의 회무결산보고에 이어 태순감사의 감사보고,공석중인 감사에 혁창족을 선출하고 2015년 예산심의.기타토의등으로 행사를 마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족의를 두텁게 했다.

〈대구종친회 사무국장 권충강〉

서울청·장년회 2014정총 및 송년회

△2014서울 청장년회 정총에서 권승호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서울청·장년회(회장 권승호)는 지난11월28일(금) 오후7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더남 식당에서 안동권씨서울청장년회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초대회장 권영상 고문을 비롯 권영석 서울산악회장, 회장단, 족친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회의 진행은 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망배(望拜), 권승호 회장의 인사로 "오늘 겨울비가 오는 쌀쌀한 우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는 한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격려를 위해 참석해주신 초대 회장이신 권영상 고문을 비롯하여 회장단, 회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기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모두 복많이 받으시길 축원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고문의 격려사로 오늘 우중에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참석해준 족친회원께 거듭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앞써 평소 당회 발전을 위해 헌신 성원지도 해주신 권웅열 원로고문님 한분을 초청 우리의 뜻을 전해 올리려 했는데, 오늘 여건상 참석치 못해 대종원 범준 홍보부장에게 대신 수여 한다하였다. "귀하는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의 고문으로써 그동안 투철한 숭조이념과 애족사상으로 문사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후원 격려 인사로 영석 서울산악회장 등이 축하 인사말을 했다. 이어 경과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토의안건으로 차기 정기총회일은 서울청년회을 창립기념일인(1993년 10월16일) 기준 매년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이어 순용 사무국장은 신입회원 권순백(37世.군기감공파.55년생.방사청재직)족친의 소개 및 인사를 마치고, 이어 2부 만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동권씨서울청장년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마쳤다.

(권범준 홍보부장)

槐雲칼럼

새해에는 선비정신을 發現해야

■ 槐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요즈음 우리사회가 너무나 혼탁하고 무질서하다. 각종 비리와 범법자가 판을 치고 있다. 대학교수나 전직 고위공직자의 성추행에 이어 남편과 아내, 부모까지 살해하는 반인륜적 흉악범이 나타나고 있다. 급속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물질만능주의에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인성교육의 부족 탓일까?

우리는 단군개국 이래로 인간존중과 성실 숭상의 윤리도덕 가운데 협동 단결하며 살아온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불교문화가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오랫동안 동양철학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선조들은 서구의 외래사상과 문물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동도서기(東道西器)란 교훈처럼 외래문물을 분별없이 모방하고 추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가치 있고 품위 있는 밝은 면을 찾아 그 속에 간직된 지혜와 긍지를 최대한 계발 발전시켜야 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도덕불감증에 우리의 전통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발현 계승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의 혼인 선비정신이다.

우리는 선비라 하면 유교적 인습에 얽매여 명분과 체면에 급급하여 고집만 세우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선비란 어질고 순한 사람을 비유한 말로 학덕을 갖춘 사람의 대명사로서 옛날에는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는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비는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고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선비정신은 인격의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귀감의 제시와 애국충절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함께 추구하였다. 퇴계 이황(李滉)은 '동한(東漢)의 선비는 절의를 숭상해 세상을 편안하게 하였고, 송(宋)의 선비는 도덕을 숭상해서 인심을 맑게 했으나, 진(秦)의 선비는 논란으로 천하를 망쳤고, 당(唐)의 선비는 글 쓰는 데만 열중해서 세상을 몰랐다' 고 선비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한바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9대 행동지침을 거울로 삼았다. (1)시사명(視思明: 볼 때는 분명한가를 생각) (2)청사총(聽思聰: 들을 때는 확실한가를 생각) (3)색사온(色思溫: 얼굴표정은 온화한가 생각) (4)모사공(貌思恭: 태도는 공손한가 생각) (5)언사충(言思忠: 말은 충실한가를 생각) (6)사사경(思事敬: 일은 신중한가를 생각) (7)의사문(疑思問: 의심나면 물을 것을 생각) (8)분사난(忿思難: 화가 나면 어지러워질 때를 생각) (9) 견리사의(見利思義: 재물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 등이다. 이것으로 보면 선비정신의 기본은 입지(立志)에 있으며, 항상 대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는데 있다. 그리고 선비의 가치는 재주가 아니고 덕에 있으며, 덕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덕의 실천은 곧 타인과 더불어 사는 화합과 단결을 뜻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선비정신의 구현을 찾아 볼 수 있다.

충의(忠義)면에서 보면 신라 박제상(朴堤上)은 왜국에 억류되어 온갖 회유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에 대한 충의와 지조를 지켰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趙憲)은 오직 의(義)라는 글자를 마음에 두고 최후까지 싸우다가 옥쇄를 하였다. 관리들의 사도(事道)면에서는 청백리 황희(黃喜)정승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선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시대적 양상은 차이가 있으나 정신에는 차이가 없는 일관성이 있었고, 신분적 존재가 아닌 인격의 표상이요 사회의 양심으로서의 도덕성을 개인의 내면과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는 원천이었다. 따라서 선비정신은 아름다운 민족의 혼으로 볼 수 있다. 일제 때 '선비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는 구실을 붙여 '선비정신 말살' 을 식민지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우리국민 모두는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선비정신을 새로운 가치관의 덕목으로 삼아 의식을 개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한다. 공무원은 청백리상을, 군인은 위국헌신을, 정치인은 공인의식을, 기업인은 정당한 이윤창출을, 교수와 학생들은 연구와 학업의 절차탁마에 목표에 두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충효를 중시하는 안동권씨 후손들은 이를 가슴에 새겨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선비정신의 발현이야말로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권대규(김포장기고 1학년)군이 제105대 KBS도전! 골든벨을 울렸다

2014년을 보내며 권문(權門)의 젊은 후예(後裔)! 김포시 장기고등학교 재학중인 권대규 1학년이 KBS주관 제105대 KBS '도전! 골든벨' 을 지난 21일 김포시민 회관에서 울렸다, 이날의 주인공인 대규 군(君)은 당초 16번 문제에서 탈락했으나, 26번 문제가 끝난 뒤 이어진 패자 부활전에서 되살아났다,

패자 부활 바로 직전까지 남은 학생은 단 6명 까지만 남기엽 교장의 활약으로 탈락 학생 전원이 구조했다. 이후 42번 문제에서 '최후의 1인' 으로 결정 돼 골든벨 단상에 오른 뒤 마지막 50번까지 내리 정답을 맞추며 최종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권대규 군은 우승소감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골든벨을 울려 영광이고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면서 마지막 문제에서 '정답' 이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약속한 데로 골든벨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주인공인 대규 군은 중학교 때 부터 게임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프르그래밍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공계 계열 대학을 진학해 정보보안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권군의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 집에서는 추운 겨울 아들의 골든벨 낭보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권 군은 아버지 권진흠(36世·부정공파·자영업),황향희 씨의 슬하

△권대규군이 최후의 1인으로서 골든벨 도전에 마지막 문제를 풀기위해 전력집중하고 있다.

2남중 장남이며, 동생은 대현(장기중 2학년)군과 평소 단란한 가정에서 동생과 우애가 남달리 돈독하였다. 아울러 본지에 훈훈한 소식을 전해준 김포시 장기고등학교측 과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에 본지를 대변 거듭 감사를 전한다.

(자료제공:안동권씨청장년회 권순용 사무국장/ 권범준 기자)

스테인레스 씽크볼

5백만불 수출탑 수상 (주)천일 권우상 대표

권영구 회장

권우상 대표

(주)천일(대표 권우상)은 한결같이 주방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며 더욱 품격높고 품질 좋은 제품을 더욱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자는 경영목표로 1972년 회사를 설립했다. 40여년의 역사와 전국에 46개의 총판 대리점, 미국에 LA지사, 90년도 충북 진천의 대단위 공장과 93년도 시하공장을 준공해 우수한 인력과 기술진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92년 가정용 주방용구 KS인증, 2000년(우수단체표준인증), 2003년(ISO9001인증), 2006년(ISO14001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08년(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 2009년(UI마크 획득), 2011년(3백만불 수출탑), 2013년(5백만불 수출탑) 등을 획득하여 세계적으로 제품 품질의 우수성과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주)천일 창립의 산파역으로 자문하고있는 권영구회장(83. 함양 36世, 복야공파)은 중앙대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해 51년 대구영진제작소에 입사, 천일철강, 천일공업(주)대표 한국상업용조회기계협동조합 이사장, 89년 5월 (주)천일대표로 취임했으며 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현 대표인 권우상사장(55, 서울 37世 복야공파)는 홍익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해 87년도 경방기계공업(주) 입사했으며 천일공업(주), (주)천일 상무 이사를 거쳐 2000년 7월 (주)천일 대표이사로 취임해 한국영영혁신중소기업회중부지회 회장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충북도지사 외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슬하에 박준경 여사 사이에 남매를 두고있다.

〈(주)천일자료제공〉

지역단신

▲지난 음 10월 2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평리 화봉산에 있는 복야공파 12世 평리공(휘 책) 13世 문탄공(휘 한공) 15世 종정공(휘 사종)묘소에서 ▲초헌관(권수명)▲아헌관(권영위)▲종헌관(권혁기)▲대축(권길상) 등을 추향제를 봉행하고 이어 회의에 들어가 '화봉재사, 건립추진위구성 공동회장에 권영옥(감정공계) 권청일(예빈공계) 권영욱(예천군계)를 선임하였으며 재사건립 착공은 2015년 3월초로 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음 10월 7일 오전 11시 30여명이 참자한 가운데 복야공파 15世 예천군(휘 계용) 묘소에서 ▲초헌관(권영익)▲아헌관(권혁철)▲종헌관(권영욱)▲대축(권영대)▲찬자(권영욱) 추향을 봉행했으며 이어 추밀공파 20世 목사공(휘 우) 묘소에서 ▲초헌관(권순필)▲아헌관(권영식)▲종헌관(권기태)등이 추향을 봉행했다.

▲지난 음 10월 4일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에 있는 복야공파 18世 참의공(휘 桓) 19世 참판공 (휘 邇) 20世 화산공(휘 柱) 21世 목사공(휘 硤)의 추향을 봉행, 집사분정은 ▲참의공 :초헌관(권종만) 아헌관(권대춘) 종헌관(권대용) ▲참판공 : 초헌관(권종만, 아헌관(김영주) 종헌관(안종식) 〈권혁세 기자〉

謹賀新年

甲午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配慮와 따뜻한 情誼에 머리숙여 感謝드리옵고 乙未年 새해에도 貴 地域宗親會 發展을 위해 끊임없는 獻身 있으시기 바라오며 高堂의 瑞運을 삼가 빕니다.

乙未年 元旦

安東權氏 全國地域宗親會長協議會

會 長 權吉相(부산)
副會長 權鎬俊(대전)權寧成(영천)權寧昌(영주)權寧夏(대구)
權五潤(강능)權玟鎬(산청)權寧守(제천)權秉國(상주)
權忠和(광주)權鎭壽(인천)
監 事 權在珠(안동)權承九(마포) 幹事 權寧甲(수원)

상주 종친회

고 문 권정환 권재천 회 장 권병국
부회장 권기용 권정택
이 사 권영태 권규화 권영구 권광진 권영식 권만집 권수웅 권영길 권영철 권주석
감 사 권길웅 권영한 사무국장 권오상

동정

▲권오준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은 지난 11월 2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15개국 34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2년간 등록금 전액과 월 100만원의 생활비 등, 총 13억원이 지원됐다.

▲권해옥(13, 14대 前의원)

헌정회 본회고문·사무총장은 12월 12일 합천 신문사가 선정한 2014년도 자랑스러운 합陜川人像 大償을 수상했다. 權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시 농촌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어촌 공사법 등 농촌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여 통과 시켰으며 특히 합천지역 발전을 위해 임진왜란 중 멸사봉공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항일의병 발상지 기념관과 충혼탑을 이전 건립함으로써 민족정기와 합천의 정기를 고양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되어 12월 16일 합천읍 사무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정부는 1일 경북지방

경찰청장 권기선씨(50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IBK기업은행 권선주 행장, 부행장 1월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였으며, 이 후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권오춘(해동경사연구소 이사장·본원부총재)가 지

난 3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한송 성백효 선생 고희전'개막 및 고희 기념 서전과 '부안설(附按說)(부 맹자집주' 출판기념식에 참석했다.

▲권성원 한국 전립선관리협회장(강남차병원 비뇨기과 교수)지난 11월 22일 오전 8시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 강당에서 대한언론인회와 함께 원로 언론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전립샘)건강강좌 및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서강언론동문회(회장 김백)는 11월 17일 '2014 서광언론인상'수상자로 권오연 연합뉴스 경영지원상무이사를 선정하고 12월 3일 오후 7시 서강대 곤자가홀 송년회에서 시상했다.

▲ 하나카드(주)는 지난 1

일 주주총회를 열어 前 외환카드(주) 대표이사를 역임한 권혁승씨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